

세계 정치와 하나님 (4) – 신약시대 세계 정치와 하나님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

[시편 103:19]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마태복음 6:33]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지난 3 편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정치 및 관리에 어떤 뜻을 가지셨으며,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성경을 중심으로 탐구하여 하나님의 세계 관리 원칙과 주요 개입 사건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뿐 아니라 온 민족들의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다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통치자들로서 항상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대 원칙,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원칙과 대 원칙을 주신 사실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2 천년여의 신약 시대를 통하여 인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과연 이 대 원칙의 실천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주요 시점에서 어떻게 직간접으로 개입하셨는지 알아 봄으로써 종말을 앞에 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와 소망을 파악하여 우리의 영적 위치를 확실히 해보고자 합니다.

1.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의 왕국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충실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지혜와 은혜를 입고 다윗왕 때처럼 강력한 국가로서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솔로몬왕 이후부터 올바른 예배에서 점차 벗어나고 남북으로 나뉘는 뒤에 서로 싸우면서, 둘 다 이방신 섬기는 오류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의 서클에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두 왕국은 차례로 주변국들에게 점령당하고 나라가 망하는데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외국 땅에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 70 년을 점령자를 섬기며 수치스런 유배 생활을 해야 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배 생활에서 고국 땅에 돌아와 철저히 허물어진 성곽과 성전을 복구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우상숭배와 이방 풍습에 빠져든 잘못을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고 그리스와 로마 침공자들에게 점령되고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두번째 실패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10:1-3]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등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피압박 민중인 백성의 처지를 대변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이 세운 율법 규정들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고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웠겠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분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로마서 10:21]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진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겸손하게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천명이 있었고 그들이 핍박을 피하여 로마 제국의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확산되는 바람직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요? 1세기 이후의 세계사를 공부한 분들은 기독교가 서구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에 가장 큰 흐름이었음을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천주교가 있고, 이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 개혁과 개신교의 등장 및 확산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올바르게 구현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종교 개혁이 필연적인 사건으로 발생하였을까요? 그리고 2천년을 통하여 기독교 내에 이렇게 큰 갈등이 무엇때문에 아직까지 계속되어 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역사를 평가하는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천주교가 실패한 하나님의 왕국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 및 이방 종교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급격히 성장하던 기독교는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에 대한 박해를 금지하고 자유를 허용한 조치를 통하여 드디어 박해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로마 제국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제국의 영화에 걸맞는 규모와 디자인에 따라 성당들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 가정 교회에서 수행했던 예배 형식, 즉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예배에서 이제 당시에 유행하던 태양신 숭배 예식과 황제 앞에서 수행하는 절차들이 종합된 형태로 변형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기독교는 돈과 권력의 대거 주입을 통하여 순수함과 단순함을 잃고 오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5개 교구의 하나인 로마의 교회 수장을 파파 [이태리어로 '아버지'라는 의미]를 전체 교회의 수장으로 높이고 그의 호칭을 '그리스도의 대리자 [Vicar]'로 부르면서 이 땅에서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었으니까 왕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교황 앞에 무릎 꿇고 그 권한에 순응해야 한다고 교리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황 무오설을 정하여 교황의 모든 결정은 오류가 없다는 억지 교리를 주장하고, 이를 부정하면 파면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에서 구해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많은 당시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수천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셨듯이 이제 다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어서 교회를 압박에서 구해 내셨을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권력을 입고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시대가 왔다고 흥분하면서 이 변화와 타락의 물결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조에 신학적, 조직적 뒷받침을 한 대표적 교회 리더는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시이었던 케사레아 [Caesarea]의 주교이었던 유세비우스 [Eusebius]

이었습니다. 그는 콘스탄틴 황제와 몇번 만나기도 하면서 교분을 가졌고, 공식 행사에서 황제의 면전에서 그를 찬미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고, 황제의 동상 앞에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훌륭한 시대적 변화에 교회가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수순을 밟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콘스탄틴과 그의 후임 황제 3명은 기독교와 더불어 그 이전부터 로마 사람 절반 정도가 추종하던 고대 바빌론의 태양신 숭배 종교를 동시에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도 이 태양신 종교의 사제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단 논쟁을 중재하는 등 기독교회의 수장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황제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종교가 로마 사회에서 계속 대립과 경쟁을 하는 것보다 둘을 하나로 종합한다면 사회의 안정과 결집력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기독교계에게 교리와 전통 양면에서 그러한 통합 작업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천주교의 교리와 전통에는 이방 종교의 요소들이 다분히 포함됨으로써 천주교가 순수한 기독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하나의 거대한 이단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며, 교황이 주관하는 다른 하나의 종교 집단입니다.

천주교의 변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배반이요 직접적인 반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속여 하나님께 반항토록 한 일, 그리고 대홍수 후에 니므롯 왕의 무리가 바벨탑을 건축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항거한 행위와 동일한 맥락의 배반과 반항 행위입니다. 천주교 교황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반란 집단, 거짓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 종교를 정당화 하도록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를 수립하여 1500 년 이상 사람들을 속여 왔고 오늘날 10 억 명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대신 '교회가 수립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천주교 신자 여러분은 성경과 천주교 교리를 비교하여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는 참된 용기를 가지시기 권합니다. 나는 이 후에 이 교리 비교에 대하여 자세히 글을 쓰기 원합니다만, 이번에는 교회사를 심층적으로 공부한 신학자로서 여러분에게 큰 흐름만 소개합니다.

천주교 지도부는 교리와 예배를 변질 시켰을 뿐 아니라 참되게 예수님의 겸손하고 순수한 본과 가르침을 따르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무려 6 천만명이나 이단을 처단한다는 명목하에 죽이고, 고문하고, 재산을 탈취하면서 몰살시킴으로써 참으로 극악하고 잔인한 사탄의 추종자 역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도 개신교가 득세하고 확장되자 '예수교 [Jesuits]'라는 비밀 결사 단체를 만들어 온갖 살인, 전복, 교란, 비방, 미디어를 통한 거짓의 전파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극악한 비밀 결사 단체 출신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분이 그런 활동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로마에 본부를 두고 여러 세기를 통하여 서방 세계를 손 안에서 통제하면서 천주교가 이룩했던 왕국은 과연 '하나님의 왕국' 이었던가요? 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권력을 행사하여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온 세계에 펼쳤던가요? 아닙니다. 정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세우고 후원하고 통제하였던 유럽의 왕국들은 모두 국민을 교황제도와 그들이 만든 비성경적인 교회의 억압 체제에 묶어 놓고, 그들이 세운

사제들에게 죄를 고해성사하며, 사제들이 행하는 각종 미사와 행사들에 참석하며, 자신이 지은 죄와 심지어 조상이 지은 죄를 위해서도 속죄를 받기 위하여 가진 재산을 모두 헌납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협박에 시달리며, 평생 교회의 억압과 통제 속에 살아야 하는 생 지옥 왕국들이었습니다. 그 왕국들은 교황의 지도 아래 십자군 군대를 조직하도록 백성들을 징집하여야 했으며, 이 군대는 수차에 걸친 원정을 통하여 수백만의 유대인들, 회교도인들, 그리고 천주교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러서 오늘날 모슬렘 국가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원인을 형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신도들에게 조장하여 소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약탈하며,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독일의 히틀러와 이태리 무솔리니의 악행을 찬미하며 지원하였던 만행이 이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들은 제대로 된 참회를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황은 세계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로서 찬미와 추앙을 받는 존재로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탄의 계획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17세기 이후의 유럽에서 천주교 교황의 통제를 받고 있던 식민 제국 주의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및 이태리 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북미 등 새로운 세계로 군대와 신부들을 실은 함대를 파견하여 서구 문명을 처음 접하는 여러 나라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신부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억지로 천주교인들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동시에 군대의 무력을 사용하여 해당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저항 세력을 죽이고 금은 보화와 자원을 약탈하여 본국에 보냄으로써 유럽의 식민 제국들이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천주교 국가들이 식민화 했던 나라들은 한결같이 참혹한 침탈과 강압적인 교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들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주교를 통하여 민족들을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신교 국가들을 키우시고 이들 나라들을 통하여 온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축복을 나누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의 대표적 사례가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3. 영국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천주교 국가의 세력을 꺾고 개신교 국가를 강성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은 스페인의 방대한 해외 식민지들을 관리하고 이들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아 자국을 부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해군력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588년 봄에 스페인 왕 필립 2세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개신교로 나라의 종교를 바꾸고 천주교를 억압하게 되자 영국을 침공하여 천주교 국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메디나-시도니아 공의 지휘 아래 130여척의 함선들과 27,000명의 병력으로 영국에 상륙할 '위대하고 축복받은 스페인 무적함대'를 구성하여 영국을 침공하게 하였습니다.

함선의 수에서 열세이었던 영국 해군은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의 기발한 전술로서 때 마침 스페인 함대 쪽으로 흐르는 조류와 풍향을 이용하여 화약을 적재하고 불을 지른 소형 목선을 떠 내려 보냄으로써 스페인 함선들이 불타게 됨으로써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이 틈을 타서 영국의 전투 함정들이 포격을 가하여 여러 척의 스페인 전함들이 침몰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스페인 함대는 영국 함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스코틀랜드 북단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쪽으로 돌아 아일랜드로 내려와 고국인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강한 바람과 조류의 흐름으로 대다수의 스페인 함선들은 침몰하거나 좌초하고 불과 30 여척만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의 해외 식민지 통제 수단이 폭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대영제국의 함대는 그 세력이 점점 막강하게 되어 “해가 지지 않은 제국”을 지구 상의 여러 곳에 식민지를 뚫으로써 유지하여 명실 상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면서 스코틀랜드 국왕이었던 제임스 왕이 영국의 왕이 되어 두 나라가 그의 통치아래 개신교 국가로 통일되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1 세는 1611 년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반포하여 모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리는 일이 가능하게 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 후 거의 400 년간 유일한 영어 성경으로서 모든 교회들에서 목회에 사용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사용되었고 모든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하여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천주교가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하고 심지어 성경을 번역하거나 읽는 사람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반성경적인 억압 정책을 통하여 성도들이 천주교 교황청의 잘못된 교리나 관행을 알지 못하도록 어두움에 가둬 두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도 못할 암흑의 시대가 여러 세기동안 천주교 지도부에 의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영국의 이러한 세계 복음화 기여 업적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영국을 크게 복 주셨다고 믿습니다. 1215 년에 영국 귀족들이 평화적으로 왕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룩한 대헌장 [Magna Carta]은 영국이 세계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문서입니다. 17 세기에 들어서 영국의 귀족들은 왕실의 권한은 국민과 왕실간에 맺은 사회적 계약 [Social Contract]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고, 그 결과 ‘인권 헌장 [Bill of Rights]이 1688 년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서들이 왕과 귀족 계층간의 대화로 수립된 점은 유럽의 유혈 혁명에 대비할 때에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과정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머지 않아 미국의 민주 국가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인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대륙 등지에 식민지를 형성하여 자국민을 이주시켜 원주민을 점령하면서 자원과 세금을 본국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크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민주화를 위한 주요한 발걸음이 있었다 해도 영국은 국가 교회, 즉 성공회가 국민의 영적 및 물리적 생활을 상당 부분 통제하면서 천주교와 유사하게 억압적인 제도와 관행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영국인과 유럽인들이 북미의 신세계로 대거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룩되었고 변화 되었는지 다음 편에 공부하기로 합니다.

